

# 위기의 전북 교육 대전환 '혁신 비전' 제시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한 교사상이 '궁신접수'처럼 좋은 사람을 오랫동안 곁에 두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이남호 상임대표(전 전북대학교 총장)는 지난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력향상 및 교육공동체 구현 등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과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폐쇄적인 학교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진짜배기 전북교육 발전 방향성을 언급하며, 통합교육으로의 교육체제를 변화시키겠다고 역설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내재적인 변화의 속에서도 더 이상 학교가 고립된 섬이 아닌, 미래와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구 감소와 AI·디지털 혁신 등 외부 변화와 리더십의 부재라는 내적 위기를 진단하며, "학교와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결하는 지속 가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실력 향상 등 현장 중심 교육혁신 방향 제시  
"과거 성찰·현재 진단·미래 준비 등 도민들과 함께 뜻 모아가겠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이남호 상임대표는 지난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혁신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능하면서 튼튼한 교육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배

기 전북교육포럼'의 미래 비전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은 전북지역 교사·학부모·전문가들이 전북교육 발전의 뜻을 모아 더 나은 교육정책을 발굴·제안하는 공론의 장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 발전 방향으로는 크게 △학력을 넘어 진짜 실력, △AI와 디지털 체제의 교육 혁신, △교육공동체 구현 등 세 축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교육이 대학 진학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 등 각 분야로 연결하는 튼튼한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을 넘어 진짜 실력"은 기존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중심의 교육이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농생명·수소·AI 등은 물론, 역사와 전통문화를 결합한 전북형 미래 교육 시스템 구축이다.

'AI와 디지털 체제의 교육 혁신'은 수업과 평가시스템 등 교육 전반에 걸쳐 AI·디지털 시대 대전환이다.

'교육공동체 구현'은 전북교육은 단일 학교(급) 등 학교 울타리 안에 갇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와 내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초·중·고교 연계 교육 시스템과 지역 연결성 강화 등 구성원 간의 끈끈한 연대를 바탕으로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전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한 개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포럼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바람과 뜻을 함께 모으는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성찰, 현재의 진단, 미래를 향한 준비 등 모든 과정을 도민과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아이들의 웃음과 활기찬 종소리가 멀리멀리 퍼지고, 아이들이 더 큰 세상과 이어질 수 있도록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은 이 전 총장이 상임대표를 맡아 열린 플랫폼 형식으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서인석 교수

## 산학연 협력 공모 '인정'

전북대학교 서인석 교수(공대 신소재공학부)가 산학연 협력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서 교수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5년, 전북대에서 9년간 근무하며 신소재 분야 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특히 산업체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접목해 지역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최근 5년간 국제학술지 23편, 국내 학술지 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외 학술회에서 46회 발표를 이어가며 신소재 및 배터리 분야의 최신 연구를 선도했다.

특히 출연·등록 10건, 기술이전 6건을 달성하며 중소기업의 신소재 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뒷받침했다.

특히 중소기업부 산하의 Collabo R&D 사업을 통해 (주)정석케미칼과 공동 연구한 '차세대 고효율 이차전지용 전해질 소재(황화리튬)'의 국내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기술이전으로 이어져 기업 매출 증가, 양산공장 증설, 사업화 성과로 직결되며 산학협력 R&D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남성학원과

## IB 프로그램 운영 맞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 남성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교육 프로그램(IB PYP) 교사 자격증(IBEC) 취득 인증 기관인 전주교육대학교와 IB 월드스쿨로 지정된 남성초는 IB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실습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교육대학교의 국제적 교원 양성 역량과 학교법인 남성학원의 현장 기반 IB 교육 경험을 결합해 미래 인재 양성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교무실무사 연수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지난달 30일 전북도립미술관에서 관내 교무실무사 208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교무실무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교무실무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무실무사들이 학교 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무실무사는 "앞으로 저 자신과 동료, 그리고 학교를 찾는 모든 분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을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형 위털루 코업 프로그램 본격 시행

### 전북대·JBNU-KIST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이하 KIST)이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학원 교수제를 통해 설립한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학과장 이승희)가 지역 강소기업인 에너베터리솔루션(주)(대표 신상기)과 손잡고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출연연장 허물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해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비나텍(주)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기업체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협력은 '전북형 위털루 코업(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위털루 대학의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설계한 현장 실습 지원 사업으로 학기 중엔 대학에서 이론수업을, 방학 중엔 기업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며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형 위털루 코업 프로그램



에너베터리솔루션(주)은 이차전지 분리막 코팅기술과 우수한 설비를 기반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전북 대표기업이다. 이승희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는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대학-출연연장 허물기 정책의 중요한 트랙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원교수를 통해 양성된 맞춤형 인재들이 지역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취업을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JBNU-KIST 산학연 융합학과 메일(jbnu.kist@jbnu.ac.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AI·ACT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 등록금 최대 90% 지원·해외연수도

### 전북대 전북RICE 지능화혁신연구센터, 13~16일

###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석사과정생 모집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북 RICE 지능화혁신연구센터가 오는 13~16일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전형은 2026학년도 전기(1차) 일반대학원 입학으로, 내년 3월 전북대 일반대학원 지능정보융합공학과 석사과정이다. 지원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재직자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는 등록금 최대 80~90%까지 지원되며, 2주 이내 해외 단기연수 기회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이 제공된다.

이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되며 본격 출범했다. 전북 지역의 산업 맞춤형 지능화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 역량 강화를 이끌고 있다. 이 사업은 2031년까지 8년간 총 179

억 원(국비 149억원, 지방비 및 대학 대응자금 30억원)이 투입되며, 전북대,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AI·ICT 융합기술 기반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수요 기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지역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실현하는 데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3대 주력 산업인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합복합소재 분야의 기술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용재 센터장은 "이 과정은 실무 경험을 가진 기업 재직자가 고급 지능화 기술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산학협력 모델"이라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생성형 AI로 의료 감염 대응의 길 열다

### 전북대 유서현 박사과정생, 다국어 검증으로 임상 현장 적용 가능 입증

전북대학교 조재혁 교수와 유서현 박사과정생(공대 소프트웨어공학과)이 생성형 AI 기술의 실용적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최근 열린 국제 학술회의 'Platform Technology and Service 2025(PlatCon-25)'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PlatCon-25는 ICRP, ICT Platform Society, IEEE 부산패션이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 포럼으로, 컴퓨터공학과 ICT 융합기술 분야의

권위 있는 행사다. 연구팀은 GPU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의료 QA(질의응답)용 경량화 학습용 프라임을 제안했다. 최신 기법인 QLoRA와 FSDP를 결합해 학습 효율을 높였으며, 실제 실험에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학습 시간을 65% 단축하는 뛰어난 효율성을 입증했다.

또한 한국어 기반 'KorMed MQQA', 영어 기반 'MedQA', 그리

고 실제 병원 데이터인 'Asan-AMC Health Info'까지 모두 활용한 다국어 환경과 실제 임상 환경 모두에서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박사과정생은 "의료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도 경량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라며 "앞으로 의료 QA와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재혁 지도교수는 "이번 성과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아우르는 의료 QA 모델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입증한 첫 사례"라며 "지원 제약이 큰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AI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 수업 공개

### 전북교육청, 이달 총 14차례 걸쳐 시범기관 7곳 대상... 영유아교육·보육 질 제고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달에 총 14차례에 걸쳐 도내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7곳에 대해 하반기 수업공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은 △충북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 역량 강화 등 영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를 수행 중이다.

수업공개는 9월 30일 초록빛유치원(전주)을 시작으로 △10월 17일 해바라기유치원(김제) △10월 21일 테바솔어린이집(전주) △10월 23일 가온누리어린이집(완주) △10월 28일 이리성실유치원 △10월 29일 샘물어린이집 △10월 30일 헤마어린이집으로 이어진다.

앞서 상반기는 영유아학교지원단 멘토와 시범운영 기관 교직원, 유아교육 전공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수

업공개가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은 영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업 공개뿐만 아니라 운영 나눔 등 다채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 필리핀 교원 초청연수 통한 디지털 교육 성과 확산

### 카비테주 교원 16명 참여... 한국형 디지털 교육 모델 필리핀 현지 적용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필리핀 교원 초청 디지털교육 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 16명이 참가해 전북의 디지털 교육 혁신 현장을 체험하고,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이에 따르면 연수단은 전북의 AI 중심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코스웨어 활용 수업 등 전북의 미래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이어진 교사 간 수업사례 나눔 시간에는 전북 교원들이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와 경험을 공유하고, 카비테 교원들은 자국 교실에서의 활용 사례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순창 장류마을, 강천산 등 전북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체험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필리핀 교원 연수단장은 "한국의 디

지탈 교육에서의 탁월함을 보았고, 너그레움과 협력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전북에서의 경험을 필리핀 교사들과 나누고, 교실에서 실천하며 학생들에게 전수하겠다"고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초청 연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 교육협력의 디딤돌이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교육 연계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